

# 만청의 정세와 현재의 국제 정세

양재현 (梁在賢)<sup>1)</sup>

만청(청나라 말기; 1840~1916)의 정세와 사회를 돌이켜 보며 현재의 국제 정세를 연구하여 보자. 우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주요 사건들과 중요한 인물들을 열거하겠다.

**주요 사건들** : 아편전쟁(1840), 남경조약(1840), 태평천국 봉기(1850~1864), 옹군의 난(1855~1868), 제2차 아편전쟁(1856), 천진조약(1858), 영불 북경침략(1860), 함풍제 열하몽진(1860), 북경조약(1860), 양무운동(1855~1893),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청불전쟁(1884~1885), 동학혁명(1894), 갑오전쟁(1894), 마관조약(1895), 공거상서(1895), 무술변법(1898), 을해건저(1899), 의화단 운동(1900), 신축조약(1901), 이홍장 사망(1901), 동맹회 창립(1905), 광서제, 서태후 사망(1908), 무창봉기(1911), 청 멸망(1912), 원세개 사망(1916)

**주요 인물들** : 임칙서, 증국번, 홍수전, 이홍장, 서태후, 광서제, 강유위, 원세개, 양계초, 손중산, 담사동, 혁광, 공친왕 혁흔, 심보정, 장지동

최종 과거시험인 전시에 합격한 진사들은 고위직 공직에 임명되어 명예, 권력, 부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시험에 도전한다. 예를 들면, 임칙서, 증국번,

---

1) 梁在賢 高等研究所 (Yang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이홍장, 강유위, 심보정, 장지동은 진사 출신이고, 양계초는 거인이다. 청나라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나라 과거제도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시험인 **동생시**(童生試)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시**(縣試), **부시**(府試), **원시**(院試)의 3단계가 있었다. 현시는 각 현의 현령이 주재하는 과거시험이다. 대부분은 2월에 거행한다. 시험 1개월 전에, 지현(知縣)은 시험 일자를 공포하고, 시험에 참가하는 동생은 본 현의 예방(禮房)에 신청을 한다. 성명, 관적, 연령, 3대의 경력, 그리고 시험에 참가하는 5명이 상호 서명하고, 당해 현의 관적을 가지고 있는 1명이 보증을 서야 하고, 신분이 깨끗하고, 즉 창기, 희자, 차역, 노비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 부모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어야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시험내용은 팔고문(八股文), 시첩시(試帖詩), 경론(經論), 율부(律賦) 등이다. 4~5번의 시험을 거쳐 합격자의 명단은 현의 유학서(儒學署)에 보내어 보관하고, 이로써 합격자는 부시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된다.

부시는 부(혹은 직예주, 직예청)의 관리가 주재하며 시험은 대부분 4월에 거행된다. 신청절차, 시험과목은 현시와 대체로 비슷하다. 합격자는 원시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원시는 각성의 학정(學政, 원래 명칭은 提督學院)이 주재하는 시험이다. 학정은 3년을 임기로 하며, 자, 묘, 오, 유년 8월에 황제가 친히 선발하여 파견한다. 학정이 부임한 후, 수험생은 주재지의 원근에 따라 순서대로 각각의 부와 현에 가서 시험을 친다. 첫째 해의 시험은 **세시**(歲試), 둘째 해의 시험은 **과시**(科試)라 한다. 정장(正場)과 복시(復試)가 각각 1번이며, 시험에 합격하면 생원이 된다. 그리고 부, 주, 현에서 설립한

학교에 보내어진다. 새로 합격한 생원은 친공(親供, 자술서)를 써야 하는데, 내용은 현시를 칠 때와 비슷하다(성명, 관직, 연령, 3대 이력), 그리고 신체, 용모를 적는다. 주관 관리가 심사한 후 도장을 찍어서 학교로 보낸다. 입학 후에 생원은 자주 현지 시험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다.

생원에는 능선생원(廩膳生員, 간단히 "능생"), 증광생원(增廣生員, 간단히 "증생"), 부학생원(附學生員, 간단히 "부생")의 3개 등급이 있다. 능생은 반드시 원시(세시와 과시)의 1등인 자로 하며, 매년 국고에서 백은 4냥을 받는다. 동시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주요한 직책은 동생의 집안이 깨끗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증생은 돈을 받지도 않고 직책을 맡지도 않으며, 지위는 능생보다 낮다. 부생은 부, 현에서 정원 외로 뽑은 생원이다. 시험관이 생원을 시험 칠 때 6개의 기준으로 삼는데, 문리가 잘 통하면 1등, 문리가 통하면 2등, 문리가 약간 통하면 3등, 문리에 약간 하자 있으면 4등, 문리가 황당하면 5등, 문리가 통하지 않으면 6등이다. 생원이 과거시험에 참가한 후 1,2,3등 중 앞에 이름이 오르면(큰 성은 10명, 작은 성은 5명), 비로소 향시에 참가할 자격을 준다. 나머지 3등에 오른 생원이나 어떤 사유로 향시에 참가하지 못한 생원은 향시를 치는 해 7월 하순에 학정이 주재하는 녹과(錄科)에 참가할 수 있다. 녹과에 합격하지도 못하거나, 녹과/향시에 참가하지 못한 생원은 녹유(錄遺), 대수(大收)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합격된 자는 모두 8월에 거행되는 향시에 참가할 수 있다.

향시는 3년에 1회 시행되며 정과(正科)라고 한다. 가끔 황제의 등극, 만수경전의 큰 경사가 있을 때는 황제가 영을 내

려 향시를 치를 수 있다. 이를 **은과**(恩科)라고 한다. 만일 경전이 마침 정과가 있는 해일 때는 정과를 은과로 해서 치르고, 정과는 한해를 당기거나 미루어서 치른다. 물론 정과/은과를 합쳐서 치르기도 했다. 향시는 8월에 거행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었다. 초9일에 제1장을 12일에 제2장을, 15일에 제3장을 치른다. 매장은 모두 첫째 날 시험지를 받아들이고 입장하고 셋째 날에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온다. 향시에 합격하는 인원수의 제한이 있다. 문풍의 고하, 인구 다과, 부역의 중과를 기준으로 서로 다르다. 순천부가 가장 많아서 168명이었고, 귀주가 가장 적어서 40명뿐이었다. 9월에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정방(正榜)에 이름이 오르면 **거인**(擧人)이라고 한다. 그들은 북경에서 다음해 3월에 예부에서 주재하는 전국시험인 **회시**(會試)에 참가할 수 있다. 회시를 치르기 전에, 시험 응시자는 예부의 점검을 받는다. 즉 시험을 친 사람, 시험지를 확인하고, 각성의 순무, 학정의 복시를 거쳐, 그들이 문리에 통달하였는지, 다른 사람을 사칭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회시는 3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3월 초9일이 제1장, 12일이 제2장, 15일이 제3장이다. 역시 첫째 날 시험지를 들고 들어가서 셋째 날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온다. 3장의 9일에 걸친 회시를 치르고 난 후에 합격자를 공표한다. 합격자를 **공사**(貢士)라고 부른다.

공사가 되면 다시 시험 문제와 답안은 조정의 심사인 마감을 받는다. 공사가 된 자는 예부에서 친공을 작성한 다음, 복시를 치러야 한다. 그래야 **전시**(殿試)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된다. 그해 4월에 전시는 자금성의 보화전(保和殿)에서 하루 동안 시행된다. 시험내용은 대책(對策)인데, 황제의 명의로 문제제목을 낸다. 공사의 답안에는 자수 제한이 없지만 최소한 1

천자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황제는 친히 10명의 순서를 매기고, 나머지 합격한 공사들과 함께 명단을 공포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금방제명"(金榜題名)이다. 방은 누런 종이로 되어 있고, 겉과 속의 두 층으로 되어 있으며, 대, 소금방의 구분이 있다. 대금방은 동장안 문내에 걸고, 소금방은 황제에게 바친다. 전시에 합격한 자는 3갑(三甲)으로 나뉜다. 제1갑은 3명, 수석을 장원, 차석을 방안, 제3위를 탐화라고 한다. 제1갑의 급제자는 천자에게 진사 급제의 자격을 하사받고, 한림원의 관직을 받는다. 장원은 한림원 수찬관(修撰官), 방안과 탐화는 한림원 편수관(編修官)이 된다. 나중의 7명은 이갑(二甲)이라고 하여 진사 출신을 내린다. 통상 제3갑은 200여 명이다. 제2갑은 진사 출신의 자격을 하사받는다. 제3갑은 동진사(同進士) 출신의 자격을 하사받는다. 동진사는 진사와 동등한 자격을 받지만, 관직에 임명되지 않는다. 관직의 개결(開缺)이 생기면 최소한 지현의 자리는 보장된다. 이것을 보더라도 진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3], [7], [8], [9])

**임칙서**(林則徐; 1785~1850)는 1785년에 복건성 복주 민후현(福建省 福州 閩侯縣)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과거에 낙방하여 궁핍한 훈장 생활을 하였다. 임칙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학문에 힘써 1811년(가경 16년), 27세 때 전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북경의 한림원에 들어간 임칙서는 많은 행정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에 힘썼다고 한다. 그 후 호광총독(湖廣總督, 1837~1838), 양광총독(兩廣總督, 1840), 섬서순무(1846~1847), 운귀총독(1848~1849)으로 임명되었고 흠차대신을 두 번 역임하였다. 양무운동의 중요인물인 양강총독 겸 남양대신

심보정의 장인이다. 도광제는 1838년에 임칙서를 아편 수입을 막는 흠차대신으로 임명했다. 1830년대에 영국의 아편이 대량 유입되어 은이 밖으로 흘러나가 국가재정이 줄어들었다. 아편 수입을 금지했으나 효과가 없자, 도광제는 1838년에 임칙서를 아편 수입을 막는 흠차대신으로 임명하여 광저우에 파견하였다. 임칙서는 영국 상인들로부터 차와 교환한 아편에 석회를 묻혀 바다로 폐기해 버렸는데, 이 조치에 분노한 영국 상인들은 임칙서에게 항의하였다. 영국 의회의 표결을 거쳐 영국은 청나라에 선전 포고하였다, 이것이 소위 아편 전쟁이다. 패전의 책임을 지고 임칙서는 파면되었다. 1849년(도광 29년)에 은둔생활을 하던 중에 태평천국의 난이 발발하면서 난을 진압하기 위해 흠차대신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임지로 가는 도중에 병사했다. 후세의 역사학자들은 그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15], [25])

임칙서는 호문(虎門)의 아편 소각 사건을 주도하여 외세의 침략에 신음하던 중화민족의 호기를 만방에 떨친 정치가로 유명하다. 그는 외세에 항거하는 조직을 결성하여 아편 수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는 한편, 선진의 문물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낡은 중화사상에서 벗어나 **세계로 시야를 넓힐 것**을 중국인들에게 외친 최초의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임칙서가 해임된 이유 중 하나로 당시의 청의 관료사회는 광동의 상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임칙서에 의해 그 돈이 끊긴 일을 원망하는 관료가 많았다고 한다. 만약 임칙서가 그대로 광동에서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영국을 격퇴했었을 수도 있었다고, 후세의 중국인은 안타까워했다.

**증국번**(曾國藩, 1811~1872)은 1811년(가경 16년)에 호남성 상향현(湖南省 湘鄉縣)에서 증린서(曾麟書)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증자의 70세손). 1838년(도광 18년)에 동진사에 합격하여 중앙 관청의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 본명은 자성(子城)이고, 자는 백함(伯函), 호는 **척생**(滌生)이며, 사후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하사되었다. 약체화된 청나라 조정의 약체화된 군대를 무시하고 직접 유지들의 기부금을 받아 민병대인 **상군**(湘軍)을 창설하여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였다. 양강총독(兩江總督, 1860~1868, 1870~1872)을 역임했고, 1868년에는 청나라를 섬기는 한쪽으로는 처음으로 지방관의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직례총독(直隸總督, 1868~1870)에 임명되었다. 증국번은 양무운동(洋務運動)에 참여하여, 서양식 무기 공장을 만들고, 유학생을 유럽, 미국 등지에 파견했다. 또한 후진 양성에도 주력하여 이홍장, 좌종당 같은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1865년(동치 4년), 염군(捻軍)과 싸우고 있던 몽골계 맹장 보르지기트 쉹게린첸(僧格林沁)이 전사하자, 토벌을 명받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듬해인 1866년에 이홍장으로 교체됐다. 재임 중인 1870년에 천진교안이 발생하자 그 처리를 담당했다. 같은 해에 양강총독 마신이(馬新貽, 1821~1870)가 암살되면서 증국번은 직례총독을 이홍장에게 양보하고, 양강총독에 복귀하여 마신이 살해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마신이는 산둥성 제남 출신의 무슬림 회족이며 도광 27년에 진사에 급제하여 지현으로 임명되었다. 증국번의 휘하에서 태평군, 염군과 싸웠으며, 동치 3년에는 절강순무로 임명되었다. 증국번이 직례 총독으로 전임했을 때, 마신이는 양강총독에 임명되었다.

유교 선비 출신의 문관 증국번은 총지휘관으로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해 청조 중흥의 일등 공신이 되었고 서양 침입에 대한 장기적 대책으로 양무운동이라는 초기 근대화 사업을 창시한 인물이다. 문화대혁명 시대에는 인민의 도살자라는 가혹한 비난을 받았지만, 그가 주도한 양무운동은 등소평의 개혁과 개방 시대에 이르러 중국 최초의 근대화운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학문, 도덕 수양과 현실적 국가 이익을 추구했던 지도자이자 학자였다. 그는 1872년(동치 11년) 음력 2월 4일에 재직 중 60세를 일기로 남경의 관서에서 단좌한 자세로 생을 마감했다.

동생인 증국화, 증국전, 증정간은 모두 상군에 참가하여 태평군과 싸웠다. 증국화와 증정간은 모두 전사했지만, 살아남은 증국전은 양광총독에 임명되었다. 또한 장남인 증기택은 외교관으로서 출세했다. 그는 태평천국의 장군(총왕)으로 증국번에 의해 처형된 이수성이 쓴 <이수성자술>(李秀成自述)을 간행했고, 증가에 전해지고 있던 이수성의 친필본을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했다. (참고문헌 [3], [16], [17], [18])

**홍수전**(洪秀全, 1814~1864)은 가경 18년에 광동성 화현(廣東省 花縣)에서 태어나 광서성 계평현(廣西省 桂平縣)에서 종교와 군대를 일으킨 인물이다. 15세가 되던 해, 현시에 합격했지만, 광주에서 치러진 부시에는 낙방했다. 그 후로 그는 세 번 더 부시를 치렀지만 낙방하여 충격을 받고, 고향에 돌아와 괴로운 생활을 보내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믿은 이후 기독교 신자가 되어 양수청과 함께 **배상제회**(拜上帝會)를 만들어 포교하였다. 종교 형식을 취한 배상제회는 점점 세력



을 넓혔고 교주 홍수전은 지방 유력자에 맞먹는 권력을 행사하여 1851년에 태평천국을 마침내 건국하고 천왕(天王)이 되었다. 자신을 따르던 주요 간부들을 왕으로 세우고(동왕 양수청, 서왕 소조귀, 남왕 풍운산, 북왕 위창휘, 익왕 석달개) 정식 국가 체계를 갖추었다.

초창기에는 청군에 쫓겨 다니던 홍수전은 1853년에 천경(난징)을 마침내 점령하고 장강 이남에 자신의 세력을 떨쳤다. 홍수전은 초기에는 대동(大同) 사상을 내세우며 만민 평등의 기치를 들고 도덕적인 엄격함을 주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균등 분배라는 토지 개혁제도를 내세우며 청조에 대항하였으므로 당시 중국 민중에게 열렬히 지지받았다. 하지만, 잦은 저열한 내부 권력투쟁으로 분열되어 홍수전의 실질적인 세력은 크게 감소한데다가, 동왕 양수청은 천부 하범(여호와 의 혼이 육신에 내림), 서왕 소조귀는 천형 하범(예수의 혼이 육신에 내림)이라 하며, 홍수전을 능멸하였다. 익왕 석달개를 제외한 왕 4인은 서로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려고 싸웠고, 이런 상황은 홍수전이 석달개를 불러들여 왕 4인 중 마지막으로 권력을 휘두른 북왕 위창휘의 잔당을 제거하였다. 이후 홍수전은 친형제인 홍인발과 홍인달을 왕으로 세워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였다. 석달개는 홍수전 측근들과 벌인 권력투쟁에 실망하여 남경에서 물러나 사천성 지역에 근거를 잡았다. 1862년 청은 증국번을 필두로 하는 태평천국 토벌군을 파견하고, 영국계 외인부대도 이에 호응하였다. 태평천국의 서방을 방어하던 석달개는 1863년 청군에게 공격당해 청도에서 책형으로 죽었고 1864년 6월 1일 홍수전도 토벌군에게 패하리라 예감하고 남경에서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다. 이후 7월 19일 남경이 완전히 함락당하여 태평천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홍수전은 객가(客家) 출신이다. 손문, 등소평, 강택민, 이광요, 이등휘, 양수청, 풍운산, 석달개, 구성동<sup>2)</sup>도 객가 출신이다. 객가는 예전에 중원 지방에서 살다가 여러 난을 피해 무리를 지어 강남 지역으로 이주한 민족적인 자긍심이 강한 한족이다. 객가 출신들은 대체로 민주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향시에 낙방해 출세 길이 막힌 홍수전은 아편전쟁의 패배로 수모를 당해 수렁에 빠진 청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그가 내세운 이론과 정책이 중국 공산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의해 높이 평가받았다. 그의 부도덕하고 문란한 행위와 내부의 분열로 태평천국은 14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참고문헌 [3], [16], [17], [25])

**이홍장**(李鴻章, 1823~1901)은 1823년(도광 3년)에 안휘성 합비(安徽省 合肥)에서 태어나 1847년(도광 27년) 전시에 합격하여 한림원(翰林院) 서길사(庶吉士)로 관직에 나아갔다. 이후 증국번(曾國藩)의 막료가 되어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고, 증국번의 천거로 1862년에 강소순무사가 되었다. 그 후 양강총독 서리(1865~1866), 호광총독(1867~1870), 직례총독 겸 북양대신(1870~1895, 1900~1901), 양광총독(1899~1900)으로 임명되었다. 1870년 이후 25년간 청국의 외교·군사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물론 양무운동을 주도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만주족이었던 청조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홍장은 청조 수명을 50년간 더 연장시켰던 한족 관료로 평가되고 있다. 1853년에는 단련(團練), 즉 고향 안휘성 출신들로 구성된 **회군**(淮軍)을 조직했다. 정부군보다는 고향 사람들로 조직된 군

---

2) 丘成桐(Shing-Tung Yau, 1949~ ): 하버드 대학 수학과 교수, 필즈상 수상자(1982)

대가 힘을 발휘했으니 당시 청조 군대의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이들 회군은 청조에 저항했던 태평천국(太平天國) 운동을 진압하는 데 공로가 컸다. 이후 그는 1858년에 호남성(湖南省) 출신의 증국번의 막료로 관리 생활을 시작한다. 그 후 그의 관리 생활은 탄탄대로였다. (참고문헌 [2], [3], [4], [18])

**원세개**(袁世凱, Yuán Shìkǎi, 1859~1916)는 중국 허난성 쉬창 부 상청 현 출신으로, 중국 청나라 말기의 무관(武官), 군인이며 중화민국 초기의 정치가이자 중화제국의 황제이다. 청나라 말기에서 신해혁명 직후까지 중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임오군란(1882년)을 진압한 후 약 10년간 조선에 주재하면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고종의 측근에서 무례하게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흥선 대원군을 천진으로 납치했다. 청일전쟁 발발 직전 도망치듯 귀국한 이후, 청나라 군대의 신식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귀국 후 무술변법을 계기로 청나라의 실권을 차지하였다. 손문과의 대타협으로 선통제(宣統帝) 부의를 제위에서 끌어내려 중국 이천 년의 제국사에 종지부를 찍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 성립 후 같은 해 4월에 임시 대총통인 손문으로부터 실권을 위임받았고, 이듬해 1913년 4월 1일에 손문과의 약정에 따라 대총통직을 넘겨받아 임시 대총통에 올랐다. 하지만 제위의 욕망이 있던 그는, 1916년에 스스로 황제가 되기 위하여 중화제국 제제운동(帝制運動)을 일으켜 칭제를 감행하였으나, 중국 전체에서 **토원(討袁)**의 깃발이 세워지자 이내 제위를 포기한다. 이후 얼마 안가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이 제제운동은 지방 군벌의 세력이 중앙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군벌 세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는 군벌 시대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서 군벌로 잘 알려져 있는데, 후일 북양군벌이 되는 북양군을 창설했다. 그는 실제로는 군벌이 아니다. 그가 창설한 북양군은 청나라의 정규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군을 강하게 사병화하고 군대 내에 심복을 두는데, 1916년 원세개가 죽은 후, 그의 심복들이 본격적인 군벌이 된다.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한 후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그 행정적인 공백을 각 지방군이 군정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군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군벌들이 벌인 내전은 원세개의 사후인 1916년 이후 시작되었고, 1920년대에 들어서면 본격화 되며, 1928년까지 계속된다.

원세개의 맏아들 **원극정**(袁克定, 1878~1958)과 둘째 아들 **원극문**(袁克文, 1889~1931)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까 한다. 원극정은 본처 우씨(于氏)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독일에 유학해 독일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한다. 그는 부친의 배후에서 부친이 황제에 등극할 것을 획책했고 부친을 속이고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죄명을 뒤집어 썼다. 원세개가 죽은 후 막대한 재산을 그의 주도하에 여러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택동 공산 치하에서의 말년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사촌동생 장백구의 도움을 받으며 하였다. 원세개는 본처이외에 9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중에 3명은 조선인이었다. 원극문은 셋째 첩인 조선인 안동 김씨 사이에서 1889년 조선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에서 유아시절을 보내고 청일전쟁 발발 직전인 1894년에 가족들과 중국으로 피신했다. 그는 마작과 중국 장기의 유단자이고, 서화, 골동품 수집가이며 수백 명의 기녀 측실을 거느린 호색한이자 돈을 펄펄 쓰는 한량이었다. 첫 번째 첩 심씨(沈氏)사이에 자녀가 없어 원극문은 심씨의 양자로 들어갔다. 심씨는 원극

문을 아주 애지중지해서 극문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도 방치했다. 생모인 안동 김씨가 방탕한 극문을 야단치자 오히려 심씨는 김씨를 때리며 구박했다. 원극문은 1931년에 천진에서 42세의 젊은 나이에 빈털터리가 되어 간암으로 병사했다. 그는 4남 3녀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 중 둘째 아들인 가창(家彰)과 셋째 아들인 가류(家驪)는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했다. **원가류**(1912~2003)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물리학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 **오건웅**(吳健雄, 1912~1997)도 **동양의 퀴리부인**이라 불렸던 유명한 물리학자였다. 오건웅은 UCB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78년에 제1회 울프상을 수상했다. 1973년에 원가류 부부가 일시 귀국하여 수상 주은래를 만났을 때 주은래는 이렇게 말했다. 「원씨 집안은 한 세대가 지나갈수록 진보하는구려.」 원가류는 부인이 죽은 후 중국에 정착해 살다가 북경에서 죽었다.

원극문의 생모 안동 김씨는 임종의 자리에서 아들 극문에게 두 가지 평생의 한을 토로했다고 한다. 하나는 출가한 직후 원세개의 첫 번째 첩으로부터 심한 신체적 학대를 받아 한쪽 다리를 다쳐 평생 다리를 펴지 못한 채 통증을 안고 살아야 했던 고통이었다. 다른 하나는 딸이 첩실로 출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친정어머니가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하였고 그로부터 6일 뒤에 친정아버지도 피를 토하고 죽은 집안의 아픔이었다. 함께 첩이된 조선인 오씨는 요리를 잘하고 돈 관리에도 밝아 원세개의 신임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평생을 웃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한다. 여기서 오씨는 원래 김씨의 몸종이었는데 김씨보다 나이가 많아 원세개의 둘째 첩이 되었다. 게다가 넷째 첩인 민씨도 김씨의 몸종이었다. 이것을 보더라도 김씨의 마음의 고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원극문은 평생 조선인 첩의 소생이라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인 원극정으로부터 견제를 받으며 무시도 당한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잡기와 방탕한 생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아들이 이러한 부친의 행위를 보고 참다못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 같다. (참고문헌 [4], [6], [7], [19])

**강유위**(康有爲, 1858~1927년)는 중국 청나라 때부터 중화민국 때까지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광둥성에서 태어나 지방에서 살며 유럽의 근대화에 대해 공부하였다. 고향에 사숙(私塾) **만목초당**(萬木草堂)을 열고 양계초 등의 제자를 배출하는 한편 1895년에 전시에 합격해 진사가 된다. 진사가 된 강유위는 이후 여러 차례 청나라를 개혁할 내용을 담은 상소를 올렸으며, 대신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 끝에 겨우 당시 황제였던 광서제의 눈에 띄게 된다. 그 중 중요한 것이 1898년의 **변법자강책**(變法自彊策)이다. 광서제는 당시 서태후의 손아귀에 휘둘리고 있었고 상황을 타개하고 개혁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강유위의 갖가지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강유위는 언론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세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소를 신문에 실는 방법으로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또한 「일본변정고」, 「대피득변정기」 등의 책을 출판하여 메이지 유신, 표트르 대제의 개혁을 청나라의 개혁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보국회를 조직하여 지지자들을 정치세력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보국회를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보국회가 정치개혁을 원하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자, 서태후는 이를 해산시켜 버렸다. 1898년에는 광서제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으나, 쿠데타 음

모가 원세개의 밀고로 발각되어 그의 정치개혁은 실패하였다. 그의 동생은 처형되었으며, 그를 동정하던 관리들도 파면이나 처형을 당하였다. 자신도 양계초와 함께 중국을 탈출하여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의 변법자강책에는 과거제도 개혁, 탐관오리 혁파, 각종 경제 개혁 등이 담겨 있었고, 무술변법을 통해 이중의 일부를 실행에 옮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변법은 광서제의 권위에만 의존했으며, 결국 서태후 등 수구파인 반개혁파에게 패배해 외국으로 망명을 가는 결과로 끝이 난다.

망명 이후 그는 제자 양계초와 다른 길을 걷는다. 당시 손문 등 공화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입헌군주제**를 고수하였다. 신해혁명이 성공한 이후 그의 정치적·사상적 입지는 좁아진다. 그는 1914년에 중국으로 돌아와 원세개의 제정에 반대하며 장훈 등과 함께 선통제를 복위시키기 위해 **복벽운동**을 일으킨다. 복벽운동으로 선통제를 복위시키고 입헌군주제 국가를 만들려 했으나, 내부에 호응 세력이 적었고, 손문과 군벌인 단기서 등은 이를 반역이라고 여기며 지지도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군벌들에게 대패하며 장훈의 피난으로 실패로 돌아간다. 그는 말년에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과 철학 작업에 몰두하며 저술 활동을 하다가 1927년 칭다오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 **《공자개제고(孔子改制考)》**, **《대동서(大同書)》**, **《일본변정고》**, **《아대피득변정기(俄大彼得變政記)》** 등의 저서를 남겼다. 특히 **《일본변정고》**는 광서제가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닐 정도로 애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5], [6], [7], [11], [12], [13], [14], [20], [21], [24], [25])

**양계초**(梁啓超, 1873~1929)는 중국의 근대 사상가이자, 정치가, 언론가, 개혁가, 철학자, 문학가, 사학가이자 교육가이다. 강유위의 제자로, 그를 통해 개혁 사상과 서양의 근대 지식을 배웠다. 강유위와 함께 광서제에게 보내는 상서를 함께 작성하였으며, 이것이 광서제의 눈에 들어 결국 무술변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서태후 등 반개혁 세력의 반동으로 이 혁명은 10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간다. 무술변법이 실패한 후, 그는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 언론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중화민국 초기 연구계의 지도자로서, 자산계급 개량주의와 입헌 공화제도를 지지하였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통일당을 통합시킨 진보당을 창당하여, 원세개와 손문과 경합하였다. 원세개가 중화민국을 배신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그에 대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강유위는 훗날 선통제를 복위시켜 입헌군주제 형태로 청나라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였는데, 양계초는 이에 반대하여, 세계 질서 진입을 위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단기서에게 제1차 대전에 참전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정치가인 단기서와 풍국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한 이후는 정치계를 떠났다. 그 후는 그의 배경이었던 연구계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신문과 강연, 교육과 학교 창설, 사상 사업, 저술 활동 등에 주력하였다. 양계초는 20세기 초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라 불렸을 만큼 중국에서 동양과 서양 사상에 대해 모두 해박했던 학자 중 하나였다.

그는 20세기 초 소설과 시학과 사학 혁명에서 문체와 사상 혁신을 주도하며 신문화 운동을 창도한 주요 학자이었으며, 한국인들의 3.1 운동 이후 베이징의 5.4 운동이 일어나는 데 사상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그는 정치계와 학계, 언론계



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생전에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청화 대학, 개신교 사립 연경 대학 등을 비롯한 당시 중국의 주요 대학에 그의 학술 풍격이 영향을 주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로 당대 학술의 전통적 대가로 인정되었다. 그가 남긴 「중국근삼백년학술사」, 「중국역사연구법」, 「신민설」 등은 그의 호를 딴 「음빙실합집(飲冰室合集)」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1914년 청화학교(淸華學校)를 찾아 가진 '군자(君子)'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중국의 경전인 <주역(周易)>에서 따온 '자강불식(自強不息), 후덕재물(厚德載物)'을 언급하며 학생들과 학자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면학의 정신을 격려하였는데, 1917년부터 청화대학의 정식 교훈(校訓)이 되었다. 그 후 청화대학에서 중국 역사 연구법 등의 강의를 맡았고, 1923년부터는 청화대학의 초빙교수로서 학생을 지도했다. 그는 1929년 1월, 북경의 협화의원(協和醫院)에서 신장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명문가 출신의 본처 이혜선(李蕙仙, 1869~1924)는 양사순(梁思順, 1893~1966), 양사성(梁思成, 1901~1972), 양사장(梁思莊, 1908~1986)을 낳았고, 이혜선의 몸종이었다가 첩이 된 왕계전(王桂荃, 1886~1968)은 양사영(梁思永, 1904~1954), 양사충(梁思忠, 1907~1932), 양사달(梁思達, 1912~2001), 양사의(梁思懿, 1914~1988), 양사령(梁思寧, 1916~2006), 양사례(梁思禮, 1924~2016)을 낳았다. 중국 근대 건축의 개척자인 매타들 양사성의 본처 임휘인(林徽因, 1904~1955)은 그의 맏며느리이다. 양사성과 양사영은

중국 중앙연구원 제1기 원사(院士)였고 막내아들인 양사례는 중국 과학원 원사였다. 양사영은 고고학자이고 양사례는 중국 우주항공 산업의 초석을 닦은 항공우주 및 유도탄 전문가이다. 다른 자녀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유능한 인재로서 활약했다. 이것을 미루어보아 양계초는 조상으로부터 훌륭한 가풍을 이어 받아 자녀들을 잘 교육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의 본부인 이혜선과 두 번째 부인 왕계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이혜선의 부친인 이조의(李朝儀)는道光 25년(1845년)에 진사가 되어 도광, 함풍, 동치, 광서제 등 네 조정을 섬기며 관직생활을 했다. 그는 직례 평곡(平谷) 지현직을 시작으로 한 걸음씩 승진해 순천부윤(順天府尹: 현재 베이징 시장)까지 올랐다. 사촌오빠 이단분(李端綰)은 진사가 되어 예부상서를 지냈고, 저명한 유신파 대신의 한 사람이 되었다. 광서 15년(1889년)에 양계초는 광동 향시에 8등으로 합격했다. 이때 광동 향시 주 감독관이었던 이단서는 양계초의 재능을 알아보고, 사촌 여동생인 이혜선과의 결혼을 추진했다. 명청 시절 벼슬아치 가문 여성들은 대부분 시를 짓고 화답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혜선은 어려서부터 고시(古詩)를 익숙하게 암송했고 작시와 작문까지 했고, 금(琴)연주, 바둑, 서예, 그림에 까지 능해 친척과 친지들은 그녀를 재녀(才女)라 불렀다고 한다. 자녀 교육에는 매우 엄한 엄마였다고 한다. 왕계전은 가난한 집안의 딸로 사천성 광원(廣元)에서 태어났다. 네 살

때 부모가 돌아간 후 장사꾼에게 팔려 몇 년 사이에 네 차례나 주인이 바뀌었고 마지막에는 이해선의 친정집으로 팔려왔다. 광서 20년(1894)에 이해선이 친정집에 들렀다가 왕계전을 시녀로 삼았다. (참고문헌 [1], [2], [5], [6], [7], [10], [11], [13], [14], [20], [21], [25])

**손문**(孫文, 1866~1925)은 중국의 정치가이며 신해혁명을 이끈 혁명가, 중국 국민당(中國國民黨)의 창립자이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여러 자료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역임했던 직책을 열거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다.

1. 중화민국의 육해군대원수  
[임기 : 1923년 2월 21일 ~ 1925년 3월 12일]
2. 중화민국의 비상대총통  
[임기 : 1921년 5월 5일-1923년 2월 21일]
3. 중화민국 호법군정부의 육해군대원수  
[임기 : 1920년 11월 28일-1921년 5월 5일]
4. 중화민국의 비상대총통  
[임기 : 1917년 9월 10일-1918년 5월 20일]
5. 중화민국의 제1대 임시대총통  
[임기 : 1912년 1월 1일-1912년 3월 10일]
6. 중국 국민당의 당총리  
[임기 : 1919년 10월 10일-1925년 3월 12일]
7. 중국 국민당 중화혁명당의 당총리  
[임기 : 1914년 7월 8일-1919년 10월 10일]

8. 국민당의 이사장  
[임기 : 1912년 8월 25일-1914년 7월 8일]
9. 중국 국민당 중국 동맹회의 총리  
[임기 : 1905년 8월 20일-1912년 8월 25일]
10. 중국 국민당 흥중회의 회장  
[임기 : 1900년 1월 24일-1905년 8월 20일]

[정당 : 흥중회 → 중국 동맹회 → 국민당 → 중화혁명당  
→ 중국 국민당]

1915년에 본처인 노모정(盧慕貞, 1867~1952)과 이혼하고 송경령(宋慶齡, 1893~1981)과 재혼했다. 송경령의 언니는 송애령(宋藹齡, 1889~1973), 여동생은 송미령(宋美齡, 1897~2003)이고 남동생은 송자문(宋子文, 1894~1971)이다. 송애령의 남편은 은행가인 공상희(孔祥熙, 1881~1967)이고 송미령의 남편은 장개석(蔣介石, 1887~1975)이다. 다시 말하면, 손문은 공상희와 장개석과는 동서지간이고 송자문은 손문의 처남이다. (참고문헌 [22], [25])

상기에서 청나라 말기에 활약했던 영향력이 있는 정치가들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들의 특성과 활약상을 연구하면, 그 당시의 정치, 경제 및 사회현상을 통해 청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서태후(1835~1906)와 상기에서 소개한 여덟 명의 정치가들의 특성을 진단하며 평(評)하겠다. 이들의 보다 자세한 활약상은 여러 자료(예를 들면, 인터넷 또는 서적)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다.

**임칙서**는 훌륭한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받고 어려운 과거시험을 통과해 진사가 되었다. 그는 호문(虎門)의 아편 소각 사건을 주도하여 영국에게 아편전쟁의 빌미를 주었다. 아편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파면되었지만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갖춘 정치인이다. 그리고 그는 선진의 문물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그는 호광총독과 흠차대신으로 임명될 정도로 **유능하고 도덕을 갖춘 군자**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는 **겸손하고 학문과 수양이 깊은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증국번**은 1838년(도광 18년)에 전시에 합격해 동진사가 되었다. 그는 증자의 후손답게 조부와 부친의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맡은 일을 신중하고 성실하게 처리한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다. 14년 동안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총지휘관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조정에 추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홍장을 포함해 유능한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는 청나라에 충성하고 학문과 수양이 깊은 군자이고, 직례총독, 양강제독, 흠차대신을 역임한 **19세기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평하고 싶다. 그가 한족 출신이라 실권을 쥐진 만주족의 견제를 받으며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자주 물러섰다는 사실이 처량하고 아쉽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고매한 인품을 갖춘 유학자이다.

**홍수전**은 객가 출신으로 부시에 4번이나 낙방해 절망 속에서 헤매다가 꿈속에서 하느님과 예수를 만나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 자칭하며 같은 객가 출신인 풍운산, 양수청, 석달개와 함께 만민의 평등자유, 평화박애 사상과 토지와 부의 분배

를 주창하며 태평천국을 세웠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내세운 사상과 유사해서 여러 중국 역사학자들로부터 높이 평가된다고 한다. 태평천국은 중국 남부의 여러 성을 차지하며 청나라에 큰 위협을 주었다. 그러나 홍수전과 태평천국의 장수들은 교만하고 방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인간적인 도량이 결여되어 있었다. 결국에는 내부의 분열로 자멸하고 말았다. 필자는 홍수전은 학문과 수양을 갖추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하며 사치를 즐기는 하찮은 인간이라 평하고 싶다.

**이홍장**은 24세에 전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어, 1847년에 한림원에 들어가 서길사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안휘 순무 수하에서 참모로 근무하다가 실망한 후, 1858년에 증국번을 찾아가 알현하고 그의 참모가 되었다. 증국번의 참모로서 태평천군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경험은 훗날 그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훌륭한 스승인 증국번에게서 인내력과 지휘관의 자세를 배웠다. 그는 북양대신, 총리위문대신, 상무대신, 강소 순무, 호광총독, 양강총독, 양광총독, 직례총독 등을 역임했다.

지금까지의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너무 극단적이라 할 수 있겠다. 어떤 이는 그를 태평군과 염군을 진압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양무운동을 주도하여 부국강병을 위해 최선을 다한 애국자이자 이이제이(以夷制夷)로 열강들을 견제했던 외교관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그를 간신, 매국노, 부정부패자,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한 정치가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계초는 그의 저서 (참고문헌 [2])에서 "이홍장은 시대가 만든 영웅일 뿐, 시대를 만든 영웅이 아니

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영웅이다”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양계초는 “그의 재주를 존경하고, 그의 지식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2], pp. 29-31). 필자는 양계초의 평가에 동의한다. 필자의 그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이홍장은 그의 직책을 이용해 많은 재물을 축적했고,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했고, 양무운동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자신의 영달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의 스승인 증국번과는 달리 학문과 인격수양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는 청일전쟁의 패배와 천진조약, 마관조약, 신축조약의 치욕적인 체결은 그의 큰 실책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당시 이홍장보다 정치적·외교적 수완과 능력을 지닌 권신이 없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원세개**는 하남 향시에 두 번 낙방한 후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군사 일에 흥미를 가져 무예를 닦으며 군사학 공부에 집중했다. 양아버지 원보경과 절친한 오장경이 원세개의 군사적 재능을 인정하고, 직례총독 겸 북양대신인 이홍장에게 그를 추천했다.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발발했을 때, 이홍장은 오장경과 원세개를 조선에 파견해 임오군란을 평정하고 대원군을 텐진으로 납치하도록 했다. 원세개는 이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 이홍장의 신임을 받게 된다. 오장경과 당숙인 운보항의 조언과 도움으로 출세한다. 그는 20대부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10년간 주재하면서 고종의 국정에 간섭하며 극악무도한 횡포를 부리며 조선의 역사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 조선인 3명의 첩을 두며 기생집을 오가며 방탕한 생활을 한 호색한이었다. 청일전쟁 발발 직전에 온 가족을

데리고 천진으로 도망갔다. 1898년에 무술변법 중에는 광서제와 강유위를 배신해 무술변법 운동은 10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유신파 6인, 즉, **강광인, 담사동, 양심수, 임옥, 양예, 유광제**가 참수되었다. 의화단 사건 중에는 서안에 피신한 서태후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쳐 환심을 사서 벼락출세의 길을 걸었다. 훗날 그는 직례총독, 군기대신,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했고, 중화민국 시기에는 대총통이 되었다. 1916년의 말년에는 황제국가를 세워 3개월간 황제가 되었다가 그해 6월에 병사했다.

필자는 그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그는 과거시험을 포기한 후 뇌물로 벼슬을 산 적이 있는 비양심적이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다. 그는 교활하게 배신·분열·이간질을 하고, 심복을 키우고, 광서제와 서태후를 무력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재물을 축적한 죄질이 나쁜 정치가이자 군인이다. 그는 교활하고 간사하며, 조선과 중국 역사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 정치가이다. 홍수전과 원세개의 공통점은 초기 단계의 과거시험에 낙방하여 벼슬길이 막히자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점이다. 객가 출신인 홍수전은 미천한 객가 출신들과 태평천국을 건설해 청나라에 반기를 들었지만, 원세개는 집안배경, 뇌물, 권모술수, 군사력으로 광서제와 서태후를 농락하며 높은 관직에 올랐다. 나중에는 청나라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데 가장 앞장 선 인물이다.

**강유위**는 1895년에 제자 양계초와 함께 회시에 응시하기 위해 북경에 있을 동안 1300 여 명의 거인들의 서명을 받아 **공거상서**를 도찰원에 제출했다. 그해 그는 회시와 전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가 주도한 변법운



동은 청일전쟁의 패배로 종언을 고한 양무운동에 뒤이어 등장한 대표적인 근대화운동이다. 이는 수많은 부문에 걸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 따른 것이었다. 서구의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체제도 배워야 한다는 조야(朝野)의 거센 요구가 변법운동의 동력이었다. 청조 말기의 혼란 상황에 비춰 당시 서구식 민주공화제의 도입은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체제를 채택한 신해혁명이 두 차례의 혁명 끝에 실패로 돌아가고 초대 총통이 된 원세개가 황제를 꿈꾸다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 의미에서 입헌군주제를 통해 부국강병을 달성코자 한 변법파의 접근방식은 나름대로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방법론에 적잖은 문제가 있었다.

당시 양무운동을 지휘했던 이홍장과 그를 뒤에서 후원했던 공친왕 혁흔(1833~1898) 등은 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다만 성급한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다. 그러나 변법이 본격화하자 이홍장은 총리아문의 행주(行走: 고문직)에서 면직됐다. 이는 변법파가 그를 변법시행의 걸림돌로 간주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것이 큰 실수였다. 본래 양무운동과 변법유신은 부국강병을 추구한 점에서 차이가 없었다. 방법론상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이홍장을 신임했던 서태후 역시 결코 수구반동(守舊反動)이 아니었다. 광서 26년(1900) 의화단 사건 이후 무술변법보다 더 강도 높은 신정(新政)을 주도한 게 그 증거다. 만일 서태후와 말이 통하는 공친왕과 이홍장 등을 적극 끌어들었다면 변법은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무술변법의 실패는 강유위를 비롯한 변법파의 자만심과 조급성이 초래한 자업자득의 성격이 짙었다.

강유위는 그의 제자 양계초보다 사상적·이념적 측면에서 독

창성이 강하고 이론적 깊이도 있지만, 성격이 전제적이고 고집스러우며 주관적인데다가 명성도 높고 독단적이어서 친구가 적었고 인간관계도 넓지 못했다. 선통제의 복벽 문제 때문에 그의 제자 양계초와의 사제지간이 악화되기도 했다.

강유위 연구의 권위자인 샤오궁추안은 <중국정치사상사>에서 그의 삶을 아래와 총평하였다. 필자도 이 총평에 동의한다.

“그는 성인도, 성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개혁가이자 이상주의자였던 그가 중국근대의 지성사에 기여한 공은 지대하다.”

**양계초**는 향시에 합격해 거인이 되었지만 22세 때인 1895년에 37세인 스승 강유위와 함께 회시에 응시했지만 낙방해 진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스승인 강유위는 회시에 합격해 전시를 거쳐서 진사가 되었다. 만약에 양계초가 진사가 되었더라면 훗날 그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강유위와 함께 입헌군정제를 고수하면서 복벽운동을 전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1895년에 강유위와 함께 1300 여 명의 거인들의 서명을 받아 공거상서를 도찰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1898년에 강유위와 함께 광서제의 지원을 받아 무술변법자강운동을 주도했으나 실패해 일본으로 망명했다. 일본에서 언론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입헌 공화제도를 지지하며 진보당을 창당하여 원세개와 손문과 경합하였다. 그의 스승 강유위는 훗날 선통제를 복위시켜 입헌군주제 형태로 청나라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였는데, 양계초는 이에 반대하였다. 정치계를 떠난 후 강연 활동, 교육과 학교 창설, 사상사업 등에 주력하였다. 그는 글을 쓰는 일에는 능하지만, 말

하는 건 서툴렀었다. 특히 그의 광동 사투리는 광서제도 듣고서 무슨 뜻인지 몰라 힘들어 했다고 한다. 나중에 그의 부인 이혜선에게 북경 표준어를 배웠다. 그는 그의 스승 강유위가 주장한 복벽(復辟)을 반대하며 「복벽론을 반박함(辟復辟論)」을 지어 강유위를 통박하였다. 이로 인해 사제지간이 악화되었다. 강유위는 양계초를 “은혜와 도의를 저버린 놈!”이라고 하며 노발대발하였다. 이에 대해 양계초는 “나는 스승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더욱 사랑한다”. 필자는 양계초는 정치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성공한 정치가는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그에 대한 평가는 무수히 많다. 대체로 그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참고문헌 [7])

“량치차오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90년이 거의 다 되었다. 그는 살아서 체포·수배·비난·매도의 고통을 겪었고, 죽어서도 질책·조롱·편하·비판을 당했다. 그런데 근래 20~30년 동안 개혁의 바람이 중화의 대지를 휩쓸고 ‘폭력 송배’가 점차 퇴색하면서 량치차오의 이름도 다시 향기를 발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는 량치차오를 평론한 문장이 우후죽순처럼 발표되었고, 중국 역사는 마침내 량치차오에게 공정한 평가를 내렸다.”

필자는 그의 사상에 문외한이라 평가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높은 평가를 주고 싶다.

**서태후**에 관한 역사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서양에서, 서태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의화단 사건에서 의화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데다, 죽을 때까지

통상 개화에 소극적이었고 '동양식 전제군주제'의 전형을 보여준 인물이니 아무래도 곱게 보였을 리 없다. 특히 선통제의 영어교사를 맡고 나중에는 절친한 친구가 된 레지널드 존스턴은 자기 책에서 이 여자가 청나라 황실을 망친 여자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서태후는 좋게 평가받지 못한다. 서태후가 의화단 운동에 불을 지폈으니 반서방주의 때문에 미화한다는 설도 있으나, 중국의 정통사관에서는 오히려 외세에 굴복하여 의화단을 배신하고 탄압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의화단에 대한 미화는 있을지언정, 서태후에 대한 미화는 없다. 진보를 자처하는 중국공산당 입장에서 변법자강운동을 탄압한 서태후는 반혁명으로 타도해야 할 수구이며, 봉건주의 세력이라는 점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필자는 서태후에 관한 역사적인 평가와 견해는 아래와 같다. 광서제가 친정에 들어갔을 때는 서태후는 물러서고 국정을 완전히 성인이 된 광서제에 맡겨야 했다. 그랬으면 1898년에 광서제는 강유위, 양계초 등의 변법파들과 변법자강운동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운동이 성공한 후 청나라가 입헌군정제를 도입했으면 중국의 새로운 역사가 일본처럼 전개되었을 수도 있었다. 서태후의 지나친 사치, 섭정, 포악함, 국제정세의 판단 부족과 광서제의 정신적·육체적 나약함 때문에 청나라가 빠르게 멸망의 길로 빠져 들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그리고 만청시기에 조선과 일본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열거하여 보겠다.

## [A] 조선

**주요 사건** : 세도정치, 쇄국정책, 강화도조약(1876), 임오군란(1882), 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1882), 조미조약(1882), 조영조약(1883), 조독조약(1883), 조러조약(1884), 조불조약(1886), 갑신정변(1884), 한성조약(1885), 천진조약(1885), 청일전쟁(1894), 민비살해(1895), 아관파천(1896), 대한제국(1897), 을사늑약(1905), 한일합방(1910)

**인물** : 대원군, 고종, 민비, 김옥균, 전봉준, 이완용, 이승만

## [B] 일본

**주요 사건** : 대정봉환(1867), 메이지유신(1868), 세이난전쟁(1877),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 이토 히로부미 암살(1909), 한일합방(1910), 조선총독부

**인물** : 메이지 천황,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도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도쿠가와 요시노부, 후쿠자와 유키치

건륭제 말기부터 부정부패가 만연한데다가 팔기군 등의 청군들의 용맹성과 강인성이 사라져 청군은 거의 쓸모없는 군대가 되어버렸다. 가경제 초기에 일어난 백련교도의 난으로 청나라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1840년(도광 2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의 패배로 청나라의 무력함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등의 국가들이 청나라에 개방·개항 등을 요구하며 침투해 들어왔다. 안에서는 1851년 홍수전이 수십 만 명의 태평군을 결성하여 호남, 호북, 강소, 강서, 저장 지역을 점령하여 태평천국을 건국했다. 1864년에 태평천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14년 동안 두

개의 제국이 존재했다. 이 기간에 제2차 아편전쟁(1858), 청불전쟁(1860)이 일어나 원명원이 초토화되고 많은 이권을 영국과 프랑스에 넘겨주어야만 했다.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한 후, 증국번, 이홍장 등의 인재들이 양무운동을 일으켜 부국강병을 시도했지만, 내부의 부패와 무능, 청일전쟁의 패배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증국번, 이홍장은 진사 출신의 문관이었지만 각각 상군과 회군을 창설해서 자신의 세력을 보여주었다. 그들과 여러 충성스러운 관료들이 청나라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었을 뿐이다. 청나라의 구조적인 부패와 무능함을 극복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황족들, 이홍장, 원세개들의 고급 관료들은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며 엄청난 재물을 챙겼다. 특히, 원세개는 서태후와 혁광 등 여러 황족들에게 엄청난 뇌물 공세를 퍼며 권력을 유지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젊은 이(주로 하급 사무라이와 낭인)들은 아편전쟁과 흑선의 등장을 보며 자국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오키노 도시미치, 요시다 쇼인, 후쿠자와 유키치, 이토 히로부미 등의 대표적인 젊은이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반대파에 의해 암살되었다. 1867년에 대정봉환을 이루지고, 다음 해에 메이지 유신의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메이지 정부는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 1871~1873년)을 유럽에 파견하고, 여러 내전에 승리한 후 부국강병책을 세워 여러 서구 열강들에 대등한 입장으로 합류하기 위해 강한 군대를 양성했다. 20여 년 만에 일본은 그동안 키워 왔던 강력한 군사력으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국제적으로 강한 제국주의 국가로 인정받았을 뿐

만 아니라 청나라로부터 받아낸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바탕으로 더욱더 강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다.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의 승리로 당시 패권국인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대등한 제국주의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바탕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은 한반도(대한제국)를 병합했다. 그 후 일본은 만주 지역으로 진출해서 1930년대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부의를 앞세워 만주국을 세워 만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조선은 세도정치, 조정의 부패, 청나라의 내정 간섭, 흥선 대원군과 고종(민비)과의 권력 투쟁, 고종의 무능, 강력한 군대 양성의 실패, 적지 않은 매국노들의 출현으로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고종은 백성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치는 하지 않고 오직 왕실의 안전에만 전전긍긍하며 러시아를 비롯해 여러 강대국에 의존하려고 했다. 그 당시 패권국인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뒤에서 일본과 프랑스를 조정하며 러시아가 한반도로 남하하는 것을 저지했다. 다행스럽게도 하늘의 도움으로 1948년에 자유와 인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나라가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가 됐고, 새로운 미소의 냉전시대가 도래했다. 1991년 소련의 공산체제가 무너지면서, 미국은 초강대국인 패권 국가가 됐다. 중국은 험난한 문화대혁명을 거치고 1970년 대 후반에 덩소핑이 미국에 개방정책을 펴면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치 및 경제 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40년 후 중국은 강대국이 되어 패권 국가인 미국에 도전하

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공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했다. 지난 20년 동안 중공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엄청나게 키워 왔다. 지난 5년 전부터는 미국은 중공의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중공의 야만적인 실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패권국인 미국은 중공에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가하는데다가 신장 위구르, 시장(티베트) 지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중공을 예전의 소련처럼 붕괴시키려고 한다. 중공의 큰 취약점은 뿌리 깊고 만연한 부정부패, 인권 탄압, 언론 통제, 공산당의 거짓 선전 등이다. 중국인(한족)들은 2000 여 년 동안 황제를 천자로 모시는 전제국가체제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체제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국인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할 때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건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손문, 양계초 등의 선각자들이 20세기 초에 자유공화제의 국가의 건설을 추진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좌절되었다. 대신에 모택동을 중심으로 1949년에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건국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공산당 내부의 모순, 부패, 권력 투쟁, 미중간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몇 년간의 시진핑의 공산당의 행보를 보면 시진핑이 1916년의 원세개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동남해 지역, 센카쿠 열도 지역과 타이완에서 핵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중국의 공산당이 붕괴되면, 14억 인구의 부담 때문에 중국은 동북지역, 강남지역, 중원지역, 남방지역, 서북 지역, 신장 위구르, 시장 티베트 지역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와중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시급히 신중하게 모색해야 한다. 필자는 패권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동맹을 맺고 독일처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을 통일해 자유민주주의 체재의 국가를 건국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적(친구)이 미래에는 친구(적)가 되는 살벌한 국제 관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에는 반드시 경제적·군사적 강대국을 반드시 건설해야한다.

## [참고문헌]

1. 吳荔明 著, 梁启超和他的儿女们,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9. 1. ISBN 978-7-301-14861-7
2. 량치차오(양계초) 지음, 리홍장 평전, 도서출판 프리스마, 2013 (옮긴이 : 박희성, 문세나)
3. 총 샤오룽(叢小榕) 지음, 중체서용의 경세가 증국번, ㈜ 이끌리오, 2003 (양역관 옮김)
4. 허우이제(侯宜杰) 지음, 원세개, 출판사 지호, 2000 (옮긴이 : 장지용)
5. 신동준 지음, [동양의 근대를 만든 사람들] 강유웨이(康有爲) 戊戌變法으로 입헌군주정 꿈꾼 실패한 개혁가, 월간조선, 2006년 12월호.
6. 서강 지음, 양계초-(중화 유신의 빛), 이끌리오 출판사, 2008 (옮긴이 : 이주노, 김은희)
7. 세시장 지음, 량치차오 평전, 글항아리 출판사, 2015 (옮긴이 : 김영문)
8. 청나라 과거제도, 중국, 북경, 장안 가에서 (2007)  
<http://blog.daum.net/shanghaicrab/10865885>
9. 청나라 과거시험의 전 과정, 사용자 지혜의바다. 2019. 8. 7. 16:31  
<https://wangjian.tistory.com/112>
10. 양계초의 아홉 자녀, 중국, 북경, 장안 가에서 (2006)  
<http://blog.daum.net/shanghaicrab/7634597>
11. 강유위의 죽음 : 칠규유혈 (七竅流血), 중국, 북경, 장안 가에서 (2013)  
<http://blog.daum.net/shanghaicrab/16154783>
12. 강유위의 대동서(大同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rucelee55&logNo=150129211647>
13. 변법자강운동 3편. 강유위(강유웨이)와 공거상서  
<https://m.blog.naver.com/edward4389/221474174140>
14. 정치적 견해인가? 강유위와 양계초의 반목 : 이권홍의 '중국, 중국인'(185) 중국사에 담긴 미스테리, 2018.03.13 (이권홍 제주국제대 교수)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5546>
15. 임칙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6. 증국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7. 홍수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8. 이홍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9. 원세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 강유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1. 양계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2. 손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3. 서태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4. 강유위 지음, 대동서, 을유문화사 (옮긴이 : 이성애)
25. 통차오(童超) 편저, 보이는 중국사 (Visible History of China) 하(下), 다른 생각, 2019 (옮긴이 : 이재연).

## [인명과 지명의 병음]

- ① 강유위 (강유웨이, 康有爲 ; 1858~1927)
- ② 광서제 (광수제, 光緒帝 [짜이진, 載君] ; 1871~1908)
- ③ 노신 (루쉰, 魯迅 ; 1881~1936)
- ④ 단기서 (된치루이, 段祺瑞 ; 1865~1936)
- ⑤ 모택동 (마오쩌둥, 毛澤東 ; 1893~1976)
- ⑥ 서세창 (쉬스창, 徐世昌 ; 1855~1939)
- ⑦ 서태후 (시타이후, 西太后 [慈禧太后] ; 1835~1908)
- ⑧ 소식 (Su Shi, 蘇軾 ; 1037~1101)
- ⑨ 손문 (쑤원, 孫文 ; 1866~1925)
- ⑩ 습근핑 (시진핑, 習近平 ; 1953~ )
- ⑪ 양계초 (량치차오, 梁啓超 ; 1873~1929)
- ⑫ 양사성 (량쓰청, 梁思成 [양계초의 맏아들] ; 1901~1972)
- ⑬ 양사장 (량쓰창, 梁思莊 [양계초의 둘째 딸] ; 1908~1986)
- ⑭ 여원홍 (리위안홍, 黎元洪 ; 1864~1928)
- ⑮ 오여명 (우리밍, 吳荔明 [양계초의 외손녀, 양사장의 딸, 북경대 교수, 1934~ )
- ⑯ 왕계전 (왕구이취안, 王桂荃 [양계초의 두 번째 부인] ; 1886~1968)
- ⑰ 원극정 (위안커딩, 袁克定 [원세개의 장남] ; 1878~1958)
- ⑱ 원극문 (위안커윈, 袁克文 [원세개의 차남] ; 1889~1931)
- ⑲ 원세개 (위안스카이, 袁世凱 ; 1859~1916)
- ⑳ 이혜선 (리후이셴, 李蕙仙 [양계초의 부인] ; 1869~1924)
- ㉑ 이홍장 (리홍장, 李鴻章 ; 1823~1901)
- ㉒ 임장민 (린창민, 林長民 [임휘인의 부친] ; 1876~1925)
- ㉓ 임칙서 (린쩌쉬, 林則徐 ; 1785~1850)
- ㉔ 임휘인 (린후이인, 林徽因 [양사성의 부인] ; 1904~1955)
- ㉕ 장지동 (장즈둥, 張之洞 ; 1837~1909)

- ㉔ 장훈 (장쑤, 張勳 ; 1854~1923)
- ㉕ 재순 (짜이쑤, 載洵 ; 1885~1949)
- ㉖ 재풍 (짜이푹, 載澧 ; 1883~1951)
- ㉗ 좌종당 (쥬쑹탕, 左宗棠 ; 1812~1885)
- ㉘ 증국번 (쥬궤판, 曾國藩 ; 1811~1872)
- ㉙ 증국전 (쥬궤취안, 曾國荃 ; 1824~1890)
- ㉚ 직례 (즈리, 直隸)
- ㉛ 풍국장 (푹궤장, 馮國璋 ; 1859~1919)
- ㉜ 홍수전 (홍슈취안, 洪秀全 ; 1814~1864)

### 양재현 고등연구소

우편번호 : 07997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93

현대41타워 1905호

email : [jhyang8357@gmail.com](mailto:jhyang8357@gmail.com)